

## - 사생결단 기도회 열째 날 -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 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7-8)

성령충만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말은 성령을 받는 것이 양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령은 인격이시니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주어질 수 없다. 신자들 안에 전 인격적으로 내주하는 성령께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더 온전해짐에 따라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간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더 온전히 주장하며 우리 안에서 더 자유롭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뜻한다. 성령충만은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다.

- 박영돈, “성령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111-112

###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특권이 자 삶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영적, 육적 상태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소욕, 세상의 안목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적 상태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아래 있고, 그 힘의 지배를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로마서 7:19-20). 그리고 이것은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입니다.

- 19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 20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19-20)

그렇다고 해서, 죄의 권세와 지배만을 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로 인한 **책임**은 “죄”가 아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구원의 실체이며 능력입니다. 특권이자,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을 모른 채 살다가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고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갇혀 있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구가 어딘지 모르고 살다가 비상구를 발견하였다면 당연히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1.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과 구별되는 구원 얻은 사람의 특권은, **성령**을 위하여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시간과 물질, 에너지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 심겨지고 그로 인한 열매를 맛보며 사는 것이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이며 특권입니다.
2. 안타까운 사실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기 이전의 삶의 방식,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불리며 신분적 변화는 있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내적 상태는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27)

3. 이러한 타락의 상태로 인해,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며 참고 견디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4. 그래서,
  - A.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학습**)
  - B. 배운 것들을 적용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필히 거치게 됩니다. (**습관**)
  - C. 배움과 적용 그리고 훈련이 삶의 우선순위로 확고히 서게 됩니다. (**문화**)
  - D. 이성적, 인간적 이해를 넘어선 순종으로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따르게 됩니다. (**종독**)
5. 마귀는 그러한 우리의 육신적 상태를 잘 알고 세상의 문화나 유행 등을 앞세워서 성령의 원하시는 것을 쫓아 삼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6.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순종하며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세상의 유혹,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7. 무엇에 이끌렸는가 하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열매이든지 삶의 문화와 형태 그리고 미래까지도 결정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더 큰 열매를 위한 씨앗으로 쓰이게 될 것이고, **육신**의 열매는 사망이라는 그 분명한 열매의 본질적 성분으로 인해 처리되고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8. 육신의 열매를 어쩔 수 없이 맺었다 할지라도 이미 심겨진 것의 열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되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정리와 처리의 의미는 자유와 기쁨 안에서의 삶이라기보다는 위로와 회복적 차원에서의 은혜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감내해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 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 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 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14-18)

9. 지금 자기 개인의 삶에서 쓰이고 있는 삶의 시간과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원하시는 곳에서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 혹시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서 어쩔 수 없이, 무작정, 닥치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삶이 살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QR코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난 썬다싱

